

이 자료는 2023년 11월 21일(화) 오전 06: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서울특별시 동정자료



■ 매수 : 3매 ■ 사진 있음

웹하드(press.webhard.co.kr) ID/PW:press1

담당 : 서울특별시 대변인 언론담당관

언론담당관	2133-6205	신문팀장	2133-6207	담당자	2133-6254
이준형		천세은		조항윤	

오세훈 시장, 인문학 배우며 자활·자립의 희망 쏘아올린 수료생 격려

- 21일(화), '2023 서울시 희망의 인문학 수료식' -

- 오세훈 시장은 21일(화) 14시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열리는 '2023 서울시 희망의 인문학 수료식'에 참석해 8개월여 간의 교육과정을 성실히 이수한 수료생들을 격려한다.
 - 오세훈 시장의 첫 재임 시절인 2008년 시작된 '희망의 인문학'은 노숙인과 저소득층 등 사회 약자들이 자기성찰 등을 통해 자존감을 회복하고 자립의지를 키울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.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 동안 4,000여 명에 이르는 노숙인과 저소득층 시민이 참여했으며, 10년 만에 다시 재개된 지난해에는 303명이 수료를 마쳤다.
- 이날 수료식에는 서울시립대와 건국대에서 주관하는 행복과정 수료생들과 노숙인 시설 등에서 주관하는 희망과정 수료생 150여 명이 참석한다. 오 시장은 각 과정별 우수 수료생에게 서울 시장상을 수여할 예정이다.
 - 올해 희망의 인문학은 수요조사를 거쳐 행복과정(서울시립대·건국대 주관), 희망과정(시설주관), 대학특강 등으로 구성된 교육과정으로 진행됐다. 노숙인과 저소득 시민 739명이 참여했으며, 그 중 592명(수료율 80%)이 수료증을 받는다.

- 오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희망의 인문학 과정이 수료생 모두의 삶에 소중한 디딤돌이 되기를 바라는 한편, 앞으로도 삶이 긍정적으로 변화되고 주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분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서울시도 '약자 동행 특별시'를 만들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는 메시지를 전한다.
- 한편, 서울시는 희망의 인문학 과정을 들으면서 수강생들이 만든 캘리그라피, 석고상, 목공예 등 작품 130여 점을 20일(월)에서 22일(수)까지 3일간 시청 시민청(본관 지하 1층 시민플라자 A,B)에서 전시한다.

■ 「2023 서울시 희망의 인문학 수료식」 주요일정

시 간	소요	주요 내용	비 고
14:00~14:05	5'	행사안내(경과보고) 및 내빈소개	사회자
14:05~14:10	5'	과정 영상스케치 상영 (수료생 인터뷰 포함)	행복과정(시립대,건국대), 희망과정
14:10~14:15	5'	인사말	서울시장
14:15~14:25	10'	축사	서울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서울시립대학교 총장 건국대학교 총장
14:25~14:31	6'	수료생 답사	서울시립대학교 수료생 1인 건국대학교 수료생 1인
14:31~14:35	4'	수료증 수여식 (각 대학교 수료생 대표 각 1명)	서울시립대학교 총장 건국대학교 총장
14:35~14:45	10'	우수자 수상 (시장상3, 시립대총장상3, 건국대총장상3)	서울시장 서울시립대학교 총장 건국대학교 총장
14:45~14:50	5'	기념촬영	서울시장, 참석자 모두
14:50~14:55	5'	희망의 합창단 합창 공연	서울시립대학교 수료생
14:55~15:00	5'	축하공연	각 대학교 응원단

※ 관련부서 : 복지정책실 자활시설팀장 김완신 ☎2133-7492

관련 보도자료 :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조간용(11. 20)